

하나됨과 나눔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12월 사랑방공동체 일정 >

- 2일(토) 19:00 멩쟁이학교 종강발표회
- 3일(일) 11:00 대강절 첫째 주일예배
- 5일(화)-8(금) 멩쟁이학교 종강여행
- 10일(일) 11:00 대강절 둘째 주일예배
- 12일(화) 19:00 어린이학교 종강발표회
- 14일(목) 11:00 경대연 총회 / 18:00 기학연 법인총회
- 17일(일) 11:00 대강절 셋째 주일예배
- 18일(월)-23일(토) 대강절 연속기도 / 무림사랑방 심방
- 23일(토)-25일(월) 푸른꿈사랑방 공동체생활
- 24일(일) 11:00 대강절 넷째 주일예배 / 20:00 성탄전야예배(새벽송)
- 25일(월) 11:00 성탄축하예배(유아세례식, 성찬식)
- 27일(수) 12:00 공동체 직원 종무식
- 31일(일) 11:00 송년주일예배 / 23:30 송구영신예배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따뜻한사랑방 (감사)

강단을 꽃으로 : 박동인 · 윤경옥 집사 가정 (결혼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49 호

2023년 12월 3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교회,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 (2)

- [빛과소금] 11월호 주제 '헤어질 결심'에 실었던 정태일목사 글을 2회에 걸쳐 옮깁니다 -

돈으로 운영하는 교회. 교회 운영은 돈이 아니다. 믿음의 역사(役事)이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의 운영(살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일에 힘써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따라야 한다.

교회를 돈으로 운영하게 되면 헌금을 강요하는 일들이 생기며, 재정형편에 따라 교회생활이 영향을 받게 되고, 재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된다. 헌신의 의미로 하던 봉사가 변질되어 봉사에 대한 댓가를 요구하게 되고, 돈으로 사람을 부리는 일이 생겨 교회에 분파가 형성되고 돈이 권력이 된다.

돈으로 운영하는 교회는 헤어져야 한다. 돈으로 운영하는 교회는 교회가 시험에 빠질 수 있으나,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는 단련을 통하여 믿음이 순수해지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어렵더라도 댓가없이 구원받았으니 댓가없이 섬기는 삶을 넓혀야 한다.

겉치레에 만족하는 교회. 형식은 필요하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형식은 눈에 보이는 것이요,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나 내용은 형식에 담겨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교회에서 형식은 법과 제도, 의식(儀式)과 건물 등을 의미하고, 내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삶,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의미한다.

사람은 형식에 치우치다 보면 내용을 잃어버리게 된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형식에 치중하여 법을 고집하고, 건물에 집착하고, 예식에 매여있었다. 그 결과 지켜야 할 교회의 본래적인 삶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잃고, 예수의 생명을 잃게 되었다.

겉치레에 만족하는 교회는 헤어져야 한다. 교회는 예수의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 성도의 거룩한 교제와 예배, 교육과 훈련, 봉사와 선교 등 삶의 내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모래성 같은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다.

교회는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들이 붙어있고,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 것과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가 된 신앙공동체이다. 그러므로 한 몸이 건강하려면 그 몸에 속한 각각의 지체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 지체론은 성숙한 교회가 되는데 필요한 중요한 원리이다.

미숙하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성도 약하고, 성숙에 필요한 지체론도 약하다. 특히 사회의 개인주의에 영향을 받아 교회에서도 개인주의적인 자세로 교회생활에 임하고 있다. 모이기를 회피하고, 성도간의 교제와 교류를 기피하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가 없고 모래성과 같다.

모래성과 같은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고 헤어져야 할 교회이다. 공동체안에서 지체로서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 지체의 다양성, 각 지체의 고유성, 지체들에 대한 신뢰성, 지체들간의 관계성, 모든 지체의 일체성을 전제로 삶을 훈련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의미하고 실망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난 우리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들과 헤어질 결심을 하므로, 교회가 더 성숙하고 성화되는 기회가 되게 하는 것이다.

교회,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다.

한주간의 말씀

“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

< 누가복음 2장 32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199 206 / 200

기도 :

성경 : 시편 1편

제목 : 말씀을 소중히 여깁시다

1. 내용: 복이 있는 사람. (What)

<문단구분>

1~2 의로운 자를 악한자로부터 분리시킴

3~4 의인과 악인의 상태

5~6 심판의 날에 악한 자를 복있는 의인으로부터 분리시킴

2. 의미: 복 있는 사람의 필수사항. (Why)

1) 주님의 율법을 묵상했다.

2) 피, 길, 자리를 구분했다.

3. 적용: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속에 머물자. (How)

내가 중학생이 된다니..!

안녕하세요, 어린이사랑방 6학년 김진율입니다.

선생님께서 갑자기 졸업 기념으로 주보 글을 쓰라고 하셔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직 6년 동안 다닌 어린이사랑방을 졸업하고 푸른꿈 사랑방이 된다는 것이 실감도 안나고 사실 무엇이 변하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곧 초등학교 졸업이라는 것도 전혀 와닿지 않는데.. 어린이사랑방은 더 와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께서 글을 써달라고 하셔서 그제서야 생각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드는 생각은, 졸업과 입학이라는 것에 좀 긴장이 되기도 하고, 약간의 기대도 돼요. 마냥 두렵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전이랑 똑같이 주일날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니까요. 푸른꿈에 가면 처음엔 조금 어색하더라도 조금 알던 형 누나들과 더 가까워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죠?

어린이사랑방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어린이들을 오랜만에 만나 함께 찬양 부르던 2023년 첫 모임 날이에요. 어린이학교를 다니지 않는 저는 특히 그 날이 더 반갑고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자주 봤겠지만, 저는 같이 앉아서 밥 먹고 간식 먹으며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가 2학년 이후로는 처음이라 그런 건가봐요. 어색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사랑방교회에 오면 늘 들르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강아지 루의 집이에요. 강아지를 아주 좋아하는 저는 늘 강아지 간식을 가지고 와서 예배 마치자마자 직접 주곤 해요. 왜인지 요즘은 루를 보러 오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 저는 그 시간을 꽤 기다리곤 한답니다.

제가 어린이를 졸업해도 별다른 것 없이 매주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고 루를 보러 갈거고, 푸른꿈에서도 재밌게 지낼거예요. 어린이사랑방으로 6년을 보낼 수 있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이사야서 9 : 2,6
64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디모테전서 2 : 5-6a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484, 104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누가복음 2 : 22-32 설교자
84 따뜻한사랑방
“오랜 기다림”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105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주님의 사랑이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이충환 최연우 / 봉헌위원 : 김영화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박민정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이예은 김보경 진시우 진나우

예 배

저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셨으니
소망 가운데 머물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공동기도문

오랜 기다림

예루살렘 정결예식. 믿음이 신실했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하고 40일 정도 지난 때에 산모의 정결예식과 맞아들 헌신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예루살렘으로 십수일 걸리는 먼 여행길을 걸어왔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경건한 노인 시므온. 예루살렘에 살던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 갔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온 세상에 맨 처음으로 드러내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가 평생토록 기다려온 일이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견뎌온 시간들이 이제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오래도록 기다리는 것처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사람들이 살아갈 힘을 줍니다. 또한 기다림은 인내입니다. 신앙 안에서 기다림은 남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 끝에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성탄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모두가 됩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김중필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11월의 성경이야기는 여호수아 이야기였습니다. 이어람 선생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월요일에 역할극으로 꾸며서 재연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된 이어람 선생님 뒤를 따라 군사들과 언약궤를 든 제사장, 피리를 부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꾸러기들이 여리고성을 침묵하며 돌았습니다. 일곱 째 날엔 일곱 바퀴를 돌고 다함께 “와~” 함성을 지르자 블록으로 만든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지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억하며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화요일에는 공동체 뜰을 한 바퀴 돌며 쓰레기 줍기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쓰레기인데 주우려고 결심하고 찾으니 여기 저기 눈에 띄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귀찮을 법도 한데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쓰레기를 찾아 줍는 꾸러기들이 기특했습니다.

룩이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양말목으로 일주일 내내 곰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짧은 손가락에 양말목을 걸고 한 코 한 코 연결해 꾸러기들이 애써 만든 곰 인형은 어떤 근사한 인형보다 소중하고 멋졌습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어린이학교의 한 주가 또 빨리 지나갔습니다. 이제 11월도 지나 올 해의 마지막 12월입니다. 학기말로 갈수록 시간은 점점 더 빨리 흐릅니다.

요즘 어린이학교의 큰 이야기 주제는 난방입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있는 어린이학교 교실의 특성상 수업 전에 난방을 켜서 따뜻하게 해 놓아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학교에 일찍 등교하는 어린이들과 선

생님들의 수고가 필요한데 흔쾌히 그 수고를 담당해주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또 따뜻한 난로와 난로에 이것저것 구워먹는 재미가 있는 게르가 점점 더 인기있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주에도 게르에서는 따뜻한 추억이 계속 될 것입니다. ^^

어린이학교는 열흘 후에 학년말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연습도 하고 피드백도 하고 수업도 마무리하며 한 학기를 정리하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며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정다운 >

멋쟁이학교

2학기, 그리고 1년을 마무리하며 서로의 성장을 확인하는 기말 면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릴레이 면담은 쉽지 않았지만, 그 이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멋쟁이 학생들 하나하나의 변화를 체감하고 나누며, 피드백을 통해 더욱 성장하기를 응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멋쟁이들 또한 토요일에 있는 종강발표회를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각자마다 역할을 맡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재능을 발휘하며 설틈없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와중에 부모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셨고, 그 덕분에 <크리스마스 카드>라는 제목으로 진행했던 종강발표회는 많은 웃음과 감동 그리고 눈물로 장식하며 멋지게 막을 내렸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속초로 종강여행을 다녀옵니다. 과정을 잘 마무리하는,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어진 >

우리 가정 첫 심방

2주전 토요일 저녁 시간으로 정해 심방을 받았다. 목사님들이 오신다는 생각에 청소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대접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심방 마지막 차례였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게 먹는 것으로 부담을 드리지 않아야겠고, 너무 차린 게 없어도 안 될 것 같았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청소를 하고 다과를 준비하고 있는데 앞 심방이 길어져서 20분 정도 늦는다는 연락을 받고 반가웠다. 그리고 딱 좋은 시간에 두 분 목사님 내외가 우리 가정에 오셨다.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 정재훈 목사님께서 반석위에 세운 집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셔서 우리 가정의 바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들었다. 또 기도제목을 물으셨을 때는 올해로 정년을 맞는 시아버님께서 수십 년의 목회를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디아코니아사랑방 담당 교역자로 함께 오신 정태일 목사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해주셨는데 세밀하게 하나하나 신경 써서 기도해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었다.

매일 마당을 오가며 만나는 분들이고 예배나 모임에서 목사님들의 기도와 말씀을 자주 듣지만 우리 가정에 방문하셔서 우리를 위해 준비 해주신 말씀과 기도를 받고 나니 참 좋았다. 오래 전부터 교회에서만 들었던 '심방' 이라는 단어가 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는 만남은 목사님 내외분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거실의 공기를 다르게 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다.

코로나 시국을 지나며 온라인으로 만나는 경험을 한 우리들은 아무래도 예전과 이런저런 만남이나 모임이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역시 사람은 얼굴을 맞대고, 손을 맞잡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분위기를 느끼며 만나야 하는 것 같다. 지난주일 광고 시간에 무림사랑방의 심방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다. 수고하여 준비하시는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길 기도해본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며 만나는 심방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시면 좋겠다. 디아코니아사랑방 노미현 사모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105, 336

성경 : 갈라디아서 6:1~10

말씀 : 서로 짐을 져주십시오

중보기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해 <중국 교회를 위한 기도>

최근 몇년 간 중국 공산당이 의도적으로 교회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중국의 기독교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중국 교회 성도들이 잘 견딜 수 있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꿈이 있는 교회를 위한 기도>

목사님과 온 교우들이 공동체를 향한 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필요한 여러 여건들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지체들을 위한 기도>

- * 학기말 정리 중에 있는 멋쟁이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 * 대강절을 맞이하는 온 식구들의 마음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생활공동체 소식 >

감기와 독감으로 고생한 공동체 식구들은 이제 많이 회복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공동식사 자리에 식구들이 모두 참여하여 식사를 한 것이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12월에 들어서며 각 기관들은 정리와 마무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되는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